

김소영 부위원장 인도네시아 방문 결과 “금융인프라 수출 및 현지 영업애로 해소 지원, 수출금융 지원 및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

-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및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한-인니 금융협력포럼」 참석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현지진출 금융사의 애로 해소 건의
- 현대차 및 협력업체와의 수출금융 간담회 참석,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방문

1 방문 개요

우리 금융산업 및 회사를 세일즈 하기 위해 9.4.(월)~8.(금)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하노이), 홍콩을 방문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이틀간의 일정(9.4.~9.5.)을 마무리하고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금융사들이 다수 진출*하고 추가진출 수요도 높은 나라이며, ‘22.4월부터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운영중인 국가이다. 특히 오픈뱅킹 및 지급결제시스템, 부실금융사 정리 시스템 등 한국의 금융인프라 및 금융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이다.

* '23.3월말 기준 27개사 32개 점포 진출(은행9, 증권9, 생보1, 손보5, 여전8)

** 우리 금융회사/기업들의 아세안 진출 및 아세안의 금융발전 지원을 위해, 주아세안 대표부에 설립된 기구(공무원 2, 금융공공기관 파견 5 등으로 구성)

<주요 일정> ※ 9.5.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

9.4.(월)	9.5.(화)	9.6.(수)
한-인니 금융협력포럼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간담회	현지 금융회사 간담회
인니 금융감독청 고위급 회담	자카르타→호치민	핀테크 데모데이 in 호치민
수출금융지원 간담회		호치민→하노이

① 「한-인니 금융협력포럼」 참석 (9.4.(월))

「한-인니 금융협력포럼」은 금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이하 해금협)가 지난 '19년에 이어 개최한 행사로, 김소영 부위원장과 Mahendra Siregar(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 등 양국 금융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 지속가능금융의 현황과 도전과제,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모색 및 체계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3.2월 출범한 협의체로, 국내 금융인프라기관 및 각 협회 포함 총 25개 기관이 참여중
(※ 사무국 : 한국금융연구원 內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 한-인니 금융협력포럼 개요 >

- 주최 : 금융위원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인니 금융감독청 공동 주최
- 일시/장소 : 2023.9.4.(월) / 자카르타 Four Seasons 호텔
- 주요 참석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규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Mahendra Siregar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 Rudy Kamdani 보험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 명
- 참석기관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및 현지 금융기관 관계자
- 주제 : Forging the Future of Finance: Strengthening Collaboration and Sustainable Finance in Korea and Indonesia
- 논의내용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금융의 현황과 도전과제,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방안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금융협력 관계가 긴밀히 유지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양국 민간 금융회사들의 상호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화 등 한국의 금융혁신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 등 한국의 금융인프라에 대해 관심이 높은 국가들과의 금융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해, 해금협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해금협의 인력과 재원을 보충하고 금융분야별 및 지역별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인도네시아 등 상대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ahendra Siregar 금융감독청장은 환영사에서 과거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서구권 금융회사들이 주주의 이익 등에만 초점을 두었던 반면, 최근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한국 금융기관들은 이익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지원에도 관심을 크게 두고 있다며, 지속 가능 금융의 좋은 사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측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개발원,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KCB 등이 발표에 나서 한국의 보험/보증제도, 증권 및 결제시스템, 신용정보 등 인도네시아 금융권의 관심이 높은 한국의 금융 인프라를 소개하며, 인도네시아 수요에 맞추어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②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고위급 회담 (9.4.(월))

김소영 부위원장은 Mirza Adityaswara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부청장을 만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의 영업애로 해소를 건의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회사들은 실물경제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현재 한국 금융회사들이 경영진 적격성 심사절차, 본국직원 수 및 근무기간 제한 등의 규제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금융회사들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건의하였다. 이에 Mirza Adityaswara 부청장은 한국 금융회사들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높게 평가하며, 고용부 등 관련기관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③ 수출금융 지원 간담회 (9.4.(월))

김소영 부위원장은 8.16일 발표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을 방문하여 현대차 및 협력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이 마련한 협력업체의 해외 동반진출시 금융지원방안*을 안내하며, 이러한 해외 동반 진출 사례가 다른 대기업에도 적극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금융 지원 차원에서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3.8.30. 금융위 보도자료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이 함께 현대차·기아 협력업체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시작합니다"

④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간담회 (9.5.(화))

김소영 부위원장은 '22.4월 개소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에 방문하여 업무현황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인프라 수출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금융당국과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와의 금융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연수 및 지식공유 사업 등을 지속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3 향후 계획

김소영 부위원장은 9.5일 오후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하여 핀테크 데모데이 in 호치민 등에 참석 후 9.6일 하노이, 9.7일 홍콩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 [별첨] 「한-인니 금융협력포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축사

담당 부서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윤현철 (02-2100-2880)
		담당자	사무관	이다행 (02-2100-2886)
	금융국제화대응단 금융국제화총괄과	책임자	과 장	최상아 (02-2100-2501)
		담당자	사무관	임형선 (02-2100-2916)

